



전주동초 15회 졸업생들, 모교에 장학금 기부

전주 동초등학교 15회 졸업생들이 모교에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이에 따르면 1974년 졸업한 동문들이 올해 졸업 50주년을 기념해 십시일반 모은 장학금 200만 원을 모교에 기부한 것이다. 이들은 지난 21일 모교를 방문해 장학금을 전달했다. 신경록 15회 동창회장은 "졸업 후 50년이 지나 다시 모교를 찾으니 어린 시절의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른다"며 "후배들이 꿈을 키우고 도전할 수 있는 작은 밑거름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장학금을 준비했다"고 전했다. 주명자 교장은 "이번 기부를 통해 동문들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다"며 "우리 학생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행복한 밥상, 남원 드림스타트 대상 후원물품 제공

남원시에 따르면 지난 11월 21일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행복한 밥상(노임동 소재)에서는 남원시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과 가족 80명에게 저녁 식사와 후원물품을 제공하였다. 이번 행사는 드림스타트가 관내 0세부터 12세 미만의 취약계층 대상자의 문제 및 욕구를 파악, 4개 분야별(부모/가족 신체/건강, 정서/행동, 인지/언어)서비스 운영 및 지역 자원 발굴·협업을 통해 전개해 되었다. 시니어클럽 어르신들은 "드림스타트 아동과 가족에게 따뜻한 밥 한끼를 내 자식에게 준다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며,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뿌듯하다"는 소감을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농협 무주군지부, 아침해이동센터에 초록세상 조성

농협 무주군지부(지부장 김범석)는 지난 20일 무주군 무풍면에 위치한 아침해이동센터(센터장 나찬호)에서 NH조록세상 제17호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전달식에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김범석 농협무주군지부장, 김동관 세이브더칠드런 서부지역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금차 17호를 맞이하는 NH조록세상은 공기정화 및 습도 조절에 효과 있는 것으로 알려진 스킨디아모스를 활용한 아트월을 제작하여 노후 인테리어를 개선하고 아이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김범석 지부장은 "녹색공간 조성을 통해 우리지역 아이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하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마음껏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도록 사회공헌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김제시보건소, 아빠와 함께하는 토요일 특강 운영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신생아 늘리기와 아빠의 육아 참여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예비부모 10쌍을 대상으로 '아빠와 함께하는 토요일 특강'을 23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평일 시간을 내기 어려운 맞벌이 부부를 위해 마련됐으며 임신·출산에 대해 아빠와 함께 소통하고 육아가 엄마만의 책임이 아니라 부모가 함께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예비부모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계기가 됐다. 교육 내용은 △부부가 함께하는 영아기 발달과 놀이 교육, △번역력을 높이는 분본 영유아 마시지 교육, △부모가 알아야 할 효과적인 응급 상황 대처법 교육 등으로 예비부모들의 출산과 육아에 막연한 불안감을 경감시켜 행복한 육아를 할 수 있도록 강의를 진행했다. 김은주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은 "이번 교육을 통해 육아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아빠를 육아에 동참, 부부가 함께 행복한 아이로 키울 수 있는 김제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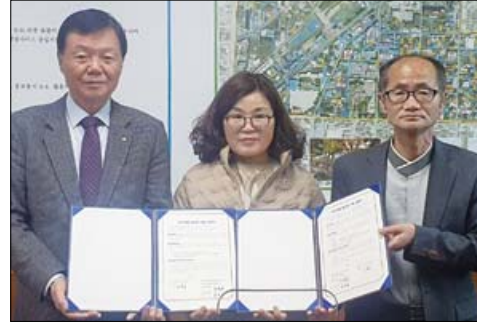
'초등유년부 금메달 목에 걸다'

김제스포츠클럽 김태현 선수, MBC배 전국수영대회 수상

김제스포츠클럽(회장 홍경수)은 지난 19일 대전 용운 국제수영장에서 열린 MBC배 전국수영대회 남자 초등유년부 배영 50m 결승전에서 34.13초라는 놀라운 기록을 거둬 대회 2일자 배영 100m 동메달에 이어 금메달을 따내는 쾌거를 거뒀다. 김태현 선수는 올해 초 배영 50m 개인 신기록이 38.00초에 그쳤지만, 꾸준한 맞춤 훈련을 통해 단 7개월 만에 4초 이상을 앞당기는 등 임취월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번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 이와 같은 훌륭한 성적을 내는 데에는 김제스포츠클럽 황은지 코치의 숨은 노력이 있었다. 황은지 코치는 올해 1월 김제스포츠클럽 전문선수반에 임용된 후 김제 실내수영장에서 수영 꿈나무들에게 아낌없는 지도와 멘탈코칭 등을 수행한 결과 김태현 선수가 금빛 물살을 가르는 쾌거를 이루게 된 것이다. 김제스포츠클럽 홍경수 회장은 "그동안 한가지 목표를 갖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이번 대회에서 아낌없이 발휘된 것 같아 김태현 선수가 무척 자랑스럽고 대



견하며 앞으로 김제 수영 꿈나무들이 더욱 체계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제스포츠클럽은 2021년 7월에 대한체육회에서 선정하는 공공스포츠클럽 공모에 선정된 후 국비와 김제시 지원을 통해 지역 공공시설물을 거점으로 다양한 운동프로그램(탁구, 배드민턴, 그룹트레이닝, 소도구필라테스 러닝크루, 수영, 농구) 지도자를 통합 및 운영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조경훈·조훈민 부자, 남원 동충동에 성금 기탁

남원시 동충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1일 지역 사업가 조경훈, 조훈민 부자(父子)가 이웃돕기 성금 200만원을 기탁했다고 22일 전했다. 동 관계자는 희망2025 나눔 캠페인의 본격적인 시작을 앞두고 일반인 가족의 참여로 출발하게 되어 훈훈했다고 전했다. 조경훈 씨 부자는 16년째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부활동과 나눔 실천으로 소외된 이웃을 위해 아낌없는 손길을 전하고 있으며 아들인 조훈민씨는 지역봉사단체 임원으로 활동하며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조훈민 씨는 "부모님이 시작한 기부의 뜻을 본받아 참여를 지속하기로 결심했다"며, "나눔의 기쁨을 알려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며 동충동의 다양한 복지사업에 소중한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김차남 동충동장은 "나눔을 실천해 주신에 감사함을 전한다"며 귀한 나눔이 소중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시 명장 김정순씨, 기술장려금 3백만원 장학기금 기탁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2024년 김제시 제2호 명장으로 선정된 김정순(신하미용실 대표명장)이 명장 선정에 따른 기술장려금 3백만원 전액을 김제시 장학재단 장학기금으로 기탁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정순 명장은 32년 경력의 미용사로 미용 분야 중 고전머리 숙련기술에 우수성을 인정받아 지난 10월 31일 김제시 제2호 명장으로 선정되어 김제시 명장 명패와 기술장려금 3백만원을 수여받았다. 김 명장은 1992년 미용사 자격증 취득 후 현재까지 여러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활발히 해왔으며, 특히 요양원, 주민자치단체 등과 협약을 맺고 정기적으로 봉사하면서 김제시 자원봉사센터 이사로 10여년 간 활동하는 등 지역사회를 위해 지속적으로 헌신하고 있다. 이날 기탁식에 참석한 김정순 명장은 "미용은 사람을 위한 직업"이라며, "단순히 미용 기술 계승만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라는 신념으로 후배인정을 진행하였고 앞으로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열악한 환경에서도 긍지를 잃지 않고 곳곳에 자기만의 길을 걷는 많은 미용인들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성주 시장은 "지역 명장으로 선정된 영예를 지역사회에 불린 김정순 명장의 선한 영향력이 향후 지역 우수인재 양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소중한 뜻이 담긴 기탁금은 김제 미래를 이끌어갈 최고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도록 장학사업에 유용하게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신하했다"고 덧붙였다. 정성주 시장은 "지역 명장으로 선정된 영예를 지역사회에 불린 김정순 명장의 선한 영향력이 향후 지역 우수인재 양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소중한 뜻이 담긴 기탁금은 김제 미래를 이끌어갈 최고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도록 장학사업에 유용하게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남원소방서, 중학생 진로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남원소방서(서장 김승현)는 지난 21일 운봉중 용성중 학생 19명을 대상으로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인 '열려라 관공서'를 운영했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공공기관의 역할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다양한 진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남원교육지원청 주관하에 진행되었으며 관내 학생들이 소방서를 방문해 눈으로 보고 장비를 착용하는 등 실제적인 교육을 통해 화재·구조·구급대원들의 업무를 피부로 느끼는 시간을 가졌으며, 자격증 등 소방공무원이 되기 위한 방법 등 이론교육을 실시 후 체험 프로그램은 생생하고 다채로운 활동으로 구성됐다. 학생들은 구조장비를 직접 다루보고, 구급장비 사용법과 경주 보호대 착용법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소방관 복장을 착용하고 방수 체험에 참여하며 실제 화재 진압 상황을 간접적으로 경험했다. 용성중 오다은 학생은 "소방복을 입고 방수체험을 하며 화재 진압 훈련을 해봤는데, 그 순간 소방관들의 열정과 헌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껴졌다"고 전했다. 한편 김승현 서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미래의 주역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장수군, 변암 금천마을서 '제1회 먹감나무 축제' 개최

장수군이 21일 변암면 금천마을에서 '제1회 먹감나무 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전했다. 먹감나무 축제는 변암면 금천마을의 특산물인 감을 주제로 다양한 체험과 즐길거리를 통해 풍요로운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장수군 금천마을 행사추진위원회(위원장 서동배)가 주최하고 장수군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최훈식 장수군수를 비롯해 마을주민 및 금천마을 향우회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처음 개최되는 먹감나무 축제를 축하했다. 이번 행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감짜기 체험, 감짜기 대회, 감시식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마을주민 노래자랑 등으로 풍성하게 구성돼 한 해 동안 구슬땀을 흘린 마을 주민들이 하나 되어 즐기는 화합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 서동배 위원장은 "이번 축제는 먹감나무를 통해 우리 지역의 전통과 가치를 알리고, 주민과 방문객이 함께 어우러



져 감의 매력을 나눌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했다"며 "많은 분들과 가을의 감동을 나눌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부안수협 임직원, 고흥사랑기부금 390만원 기탁

부안군은 지난 20일 부안수협 임직원 39명이 각 10만원씩 총 390만 원의 고흥사랑기부금을 기탁하며 지역사랑을 실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지역사회의 발전에 동참하고자 한 부안수협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큰 귀감이 되고 있다. 송광복 부안수협 조합장은 "부안군은 우리 조합원들과 임직원들이 함께 성장해온 소중한 고향으로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을 이어가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부안수협 임직원분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따뜻한 마음에 깊이 감사드리며 기부금은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에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수협의 이번 기부는 지역 내 단체와 기관의 나눔 문화 확산에 중요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농협 고창군지부·선운산농협, 마을회관 도색지원

NH농협 고창군지부(지부장 이미정)와 선운산농협(조합장 김기욱)은 농촌사랑 현장봉사단과 함께 선운산농협 관내 시거마을에서 마을회관 도색지원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했다. 농협중앙회의 자회사인 농협파트너스의 후원으로 추진된 이번 행사는 농촌마을 환경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조성해 농업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공헌활동의 하나로 NH농협 고창군지부와 선운산농협 임직원들로 구성된 농촌사랑 현장봉사단원들이 함께 마을회관 외벽 도색작업을 실시했다. 행사를 마무리한 NH농협 고창군지부 이미정 지부장은 "앞으로도 농협은 지역에 고령조합원들과 소외된 농업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아름답고 행복한 동행을 실천하는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제10회 신대인농협조합장기 게이트볼 대회 성료

정읍 신대인농협(조합장 황희중)은 지난 19일 신대인 게이트볼장에서 제 10회 신대인농협조합장기 게이트볼 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지역민과 농업인의 생활체육활동 증진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날 대회에는 신대인농협 조합장(황희중)을 비롯한 신대인읍장(유승호), 정읍시북부 노인복지관장(유우희), 정읍시게이트볼협회장과 신대인농협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읍시 관내 12개팀 80여명이 참여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황희중 조합장은 "이번 대회로 고령농업인과 지역민에게 건전한 여가생활문화를 장려하며, 다함께 어우러지는 장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복지증진에 노력하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대회 우승의 영광은 상교분회(분회장 박래필)가 거머쥐었다. 준우승은 고부분회(분회장 김영국)가, 소성분회(분회장 정경영), 연지분회(분회장 박명식)는 공동우위를 차지하며,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다. /정읍=김대환 기자